

2024
연차보고서
예술인복지재단
2024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24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2024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목차

재단 소개	2
2024년 주요 성과	3
사업 성과	5
재단 운영	20





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션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예술활동 안전망과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예술인 복지 전문기관

핵심 가치


존중·협력
Harmony


적극·공감
Open-mind

전문·혁신
Professionalism


윤리·공정
Ethics&Fairness

전략 목표


예술활동 기반 복지지원 강화


선제적 예술인 지위보장체계 확립


함께하는 예술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전략 과제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강화

*
예술인 맞춤형 성장기회 확대

*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조성

*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선도

*
협력 기반 예술인복지 거버넌스 구현

*
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강화

*
ESG·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효율·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한눈에 보는 2024년 주요 성과

1 이제 창작준비금이 아닌 '예술활동준비금'입니다.

2024년, '예술활동'의 '준비'단계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을 상하반기 연 2회에서 상반기 1회 통합 운영으로 개편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3,000명-일반 예술활동준비금은 20,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정이력별 가점을 도입하여 수혜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원로예술인과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 부여, 장애예술인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 시행 10주년을 맞은 예술로 사업

2024년은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연결하여 예술인에게 협업 경험과 다양한 직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로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9,744명의 예술인과 2,354개의 기업·기관을 연결하며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 <예술로 10년: 우리가 나눈 말, 우리가 나눌 말>을 개최하고 기념 사례집 <터>를 발간하며 지난 10년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었고, 중장기 사업 방향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 <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터> [보러가기](#)



예술로 10주년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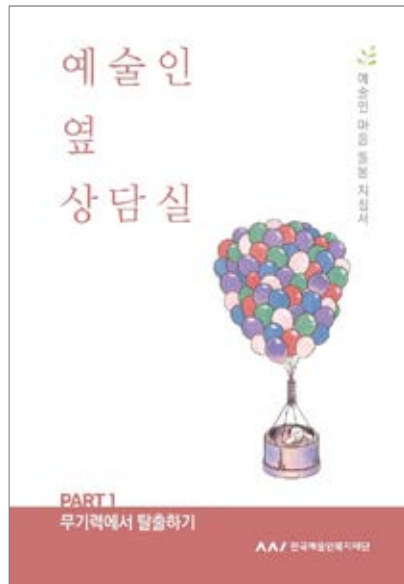
예술로 10주년 BI

한눈에 보는 2024년 주요 성과

3 예술인 심리상담 10년의 성과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역시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성과공유회 <예술인 옆 상담실>을 개최하고 향후 발전 방안 수립하기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10년간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이 많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자조(self-help) 기술을 담은 예술인 마음돌봄 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지침서는 총 6권(전자책 포함)으로 ▲무기력, ▲우울, ▲공황, ▲트라우마, ▲대인관계, ▲마음챙김(명상)을 주제로, 유형별 고충을 설명하고 실제 상담에서 활용하는 치료 방법과 원리를 안내하여 책을 읽으며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예술인 마음돌봄 지침서 <예술인 옆 상담실> [보러가기](#)



예술인 옆 상담실 표지



2025 지원사업 10주년 기념 예술인 심리상담 성과공유회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 여건 등 예술 외적인 사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예술활동의 준비단계를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운영 방식 또한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에서 상반기 1회 통합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예술인이 안정적인 활동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업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예술활동준비금'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구분해 운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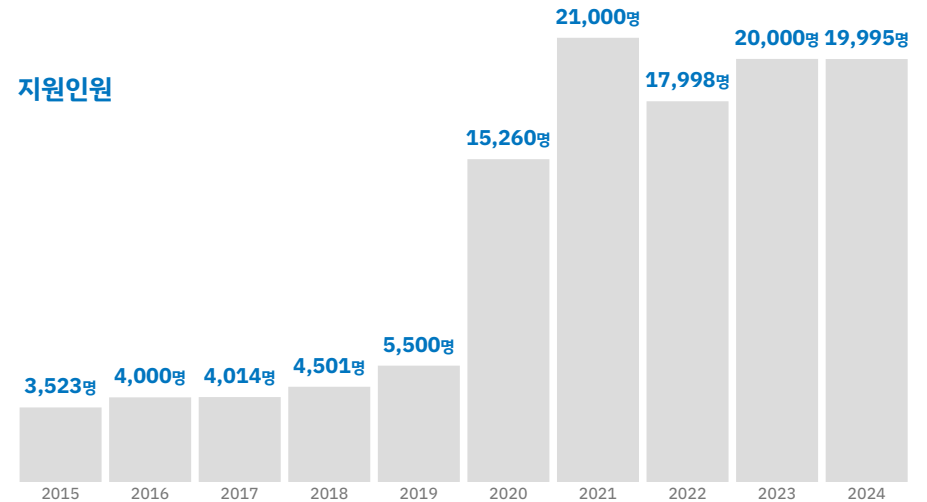
지원규모는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의 경우 격년으로 1인당 300만 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은 생애 1회 200만 원으로, 2024년에는 일반 예술인 20,000여 명, 신진예술인 3,000명 등 총 23,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누적 지원 인원 (2015~ / 신진예술인 포함)

127,7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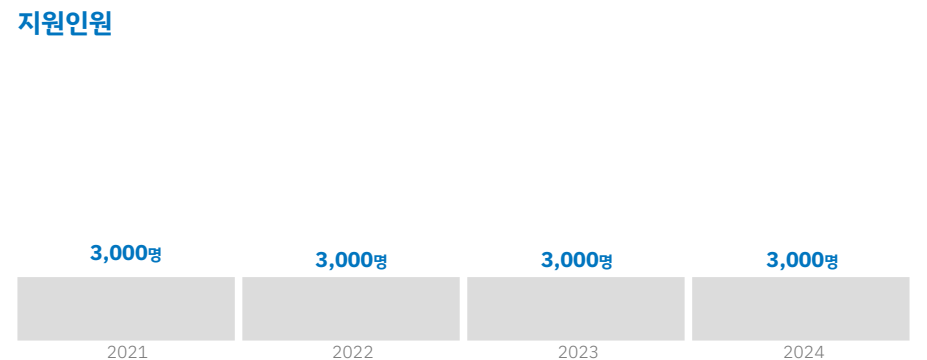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1인당 지원금

3,000,000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1인당 지원금

2,000,000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와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기업·기관은 창의적 예술 방식을 활용하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행사·공연·전시·워크숍 등을 기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예술인에게 월 120만~160만 원의 활동비와 성과관리(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매칭되어 활동하는 협업사업,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사전에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획사업, ▲지역문화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862명의 예술인이 168개 기업·기관과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획사업에 다년형(2년) 지원을 신설하여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협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로 사업 10주년 기념 포럼 <예술로 10년: 우리가 나눈 말, 우리가 나눌 말>을 개최하여 사업 지속·확장을 위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였고, 10년간 쌓아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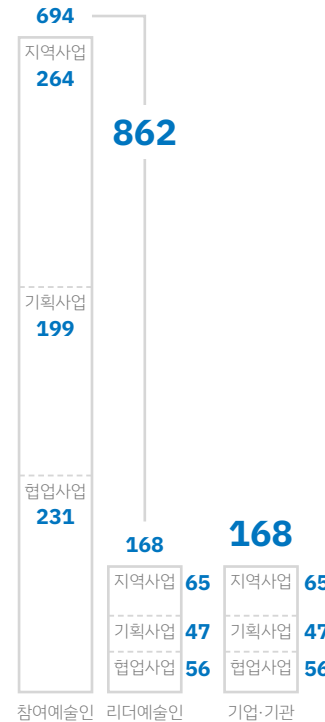
1인당 지원금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협업사업	활동비	980만원	720만원
	지원기간	7개월	6개월
지역사업	활동비	840만원	720만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기획 단년지원	활동비	840만원	720만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기획 다년지원	활동비	960만원	840만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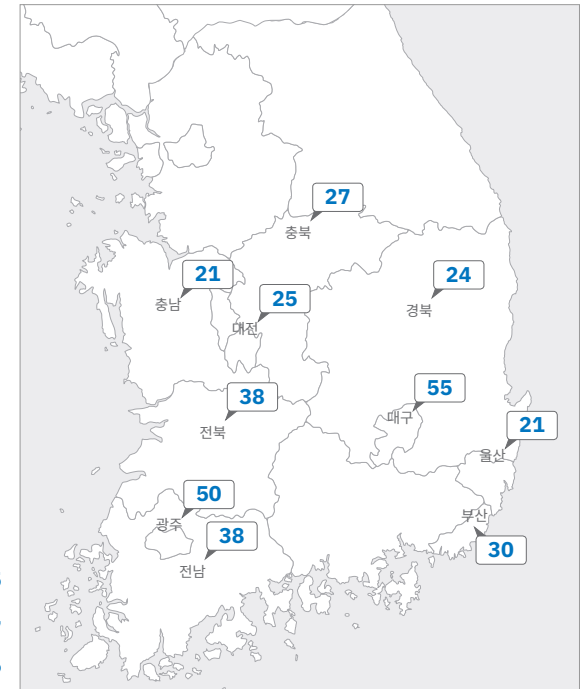
례들의 기록과 성과를 담은 기념 사례집 <터>를 발간하였으며, 중장기 연구를 통해 사업 정체성 확립, 사업목표 재정립, 공동가치 체계 구축 등 지난 10년을 기반으로 향후 발전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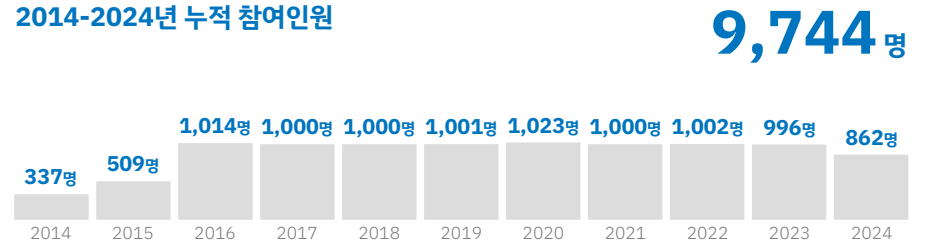
2024년 사업 참여 현황



2024년 지역사업 참여예술인 현황



2014-2024년 누적 참여인원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으로, 2021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과 함께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기획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작성법) 중심으로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진예술인의 기본 역량 강화와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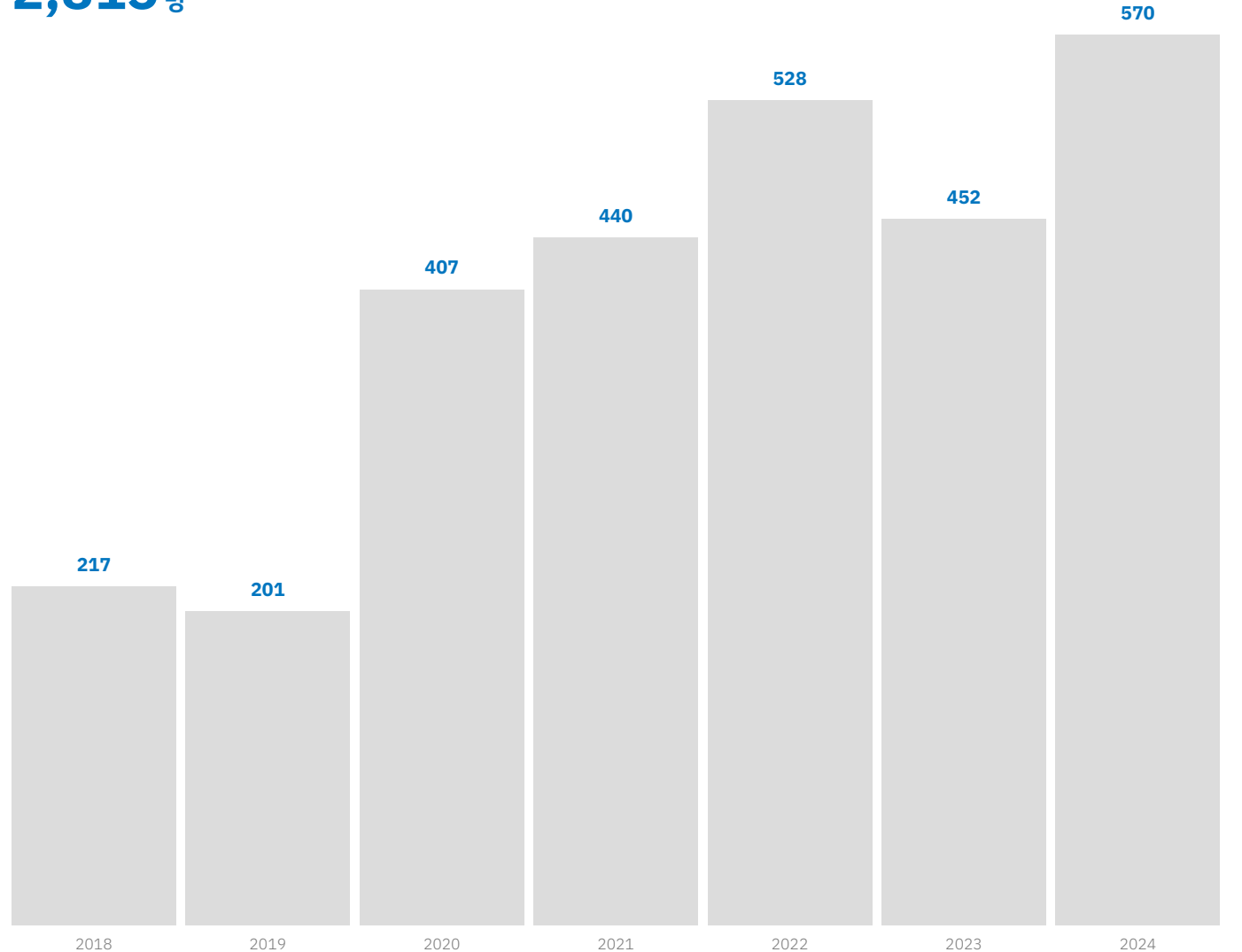
2024년에는 ▲온라인 강의,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캠프, ▲커뮤니티 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총 4개 강좌로 기획서 작성법 I, II와 자기작업 아카이빙, 예술과 공공지원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강의를 먼저 이수한 후 심화과정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신청자 1094명, 이수자 481명)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장 전문성이 뛰어난 10명의 멘토가 신진예술인 97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그룹당 3회차씩 총 63회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가 '신진'씨의 슬기로운 창작 생활」이라는 주제로 2박 3일의 캠프를 진행하여 창작의 삶에서 지속될 신진예술인들의 질문과 고민,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 예술 활동을 위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캠프 후속 프로그램으로 자발적 커뮤니티 모임(CoP)을 신규 운영하는 등 신진예술인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누적 인원 (단위: 명)

2,815명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예술인 신문고 /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 법률상담·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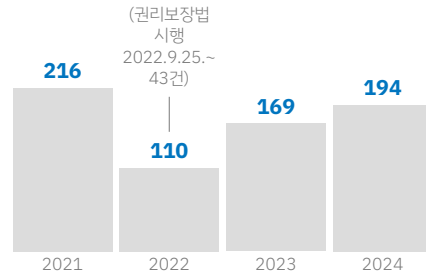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 법률상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마련하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상담·접수하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행위 상담 창구와 신고 창구를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예술인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2024년 한 해 동안 출연료 미지급, 불공정 계약 강요, 성폭력 및 2차 가해 등 총 19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0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조사를 지원하였으며, 해당 사건들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6건의 소송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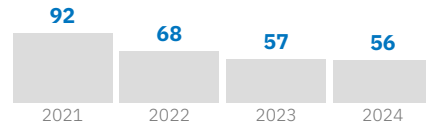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인 권리보장시스템, 전용 상담전화(02-3668-0266), 방문상담 등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피해 예술인에게 법률상담·소송·심리상담·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였고, 2024년에 총 56건의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 계약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법률상담 컨설팅팀(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했

예술인 신문고 신고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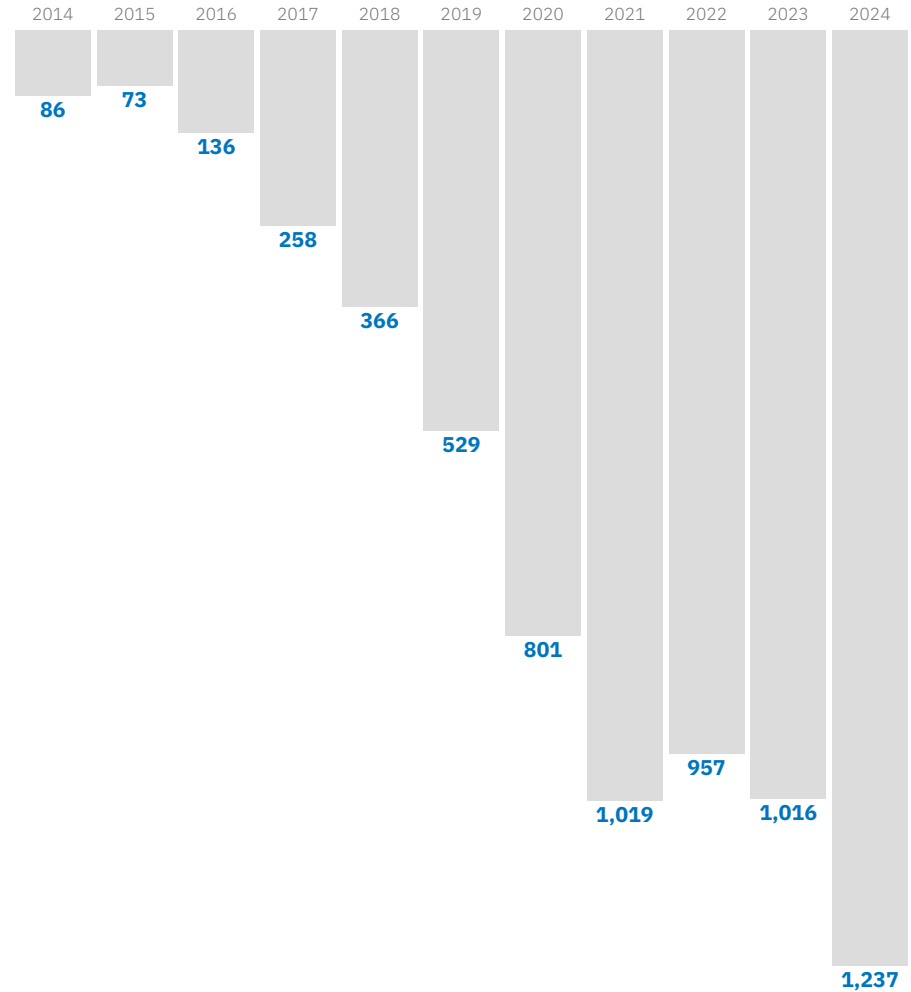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현황 (단위: 건)



습니다. 예술계 내 계약의 중요성과 공정한 계약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237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상담·컨설팅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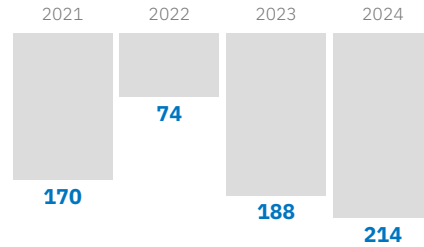
서면계약 체결 확대

재단은 예술계의 오랜 관행인 서면계약 미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 확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신고·상담창구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고 접수 창구를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으로 일원화하여 상담과 신고 과정을 효율화하고, 필요시 '예술인 신문고'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신고 38건, 상담 703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총 214건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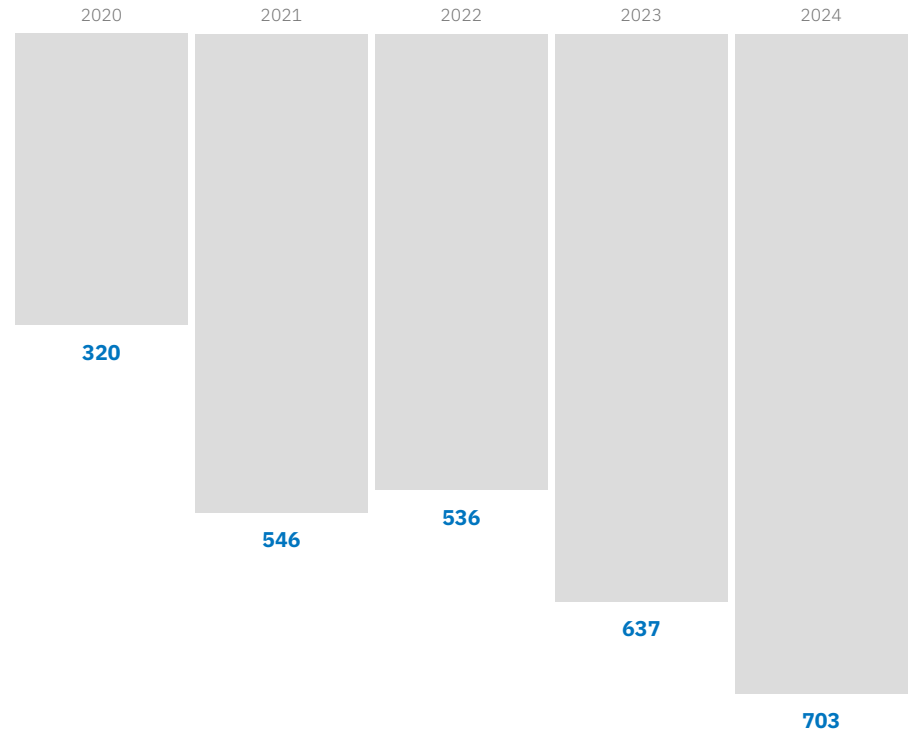
전자계약 체결 지원건수 (단위: 건)



서면계약 위반 신고건수 (단위: 건)



서면계약 상담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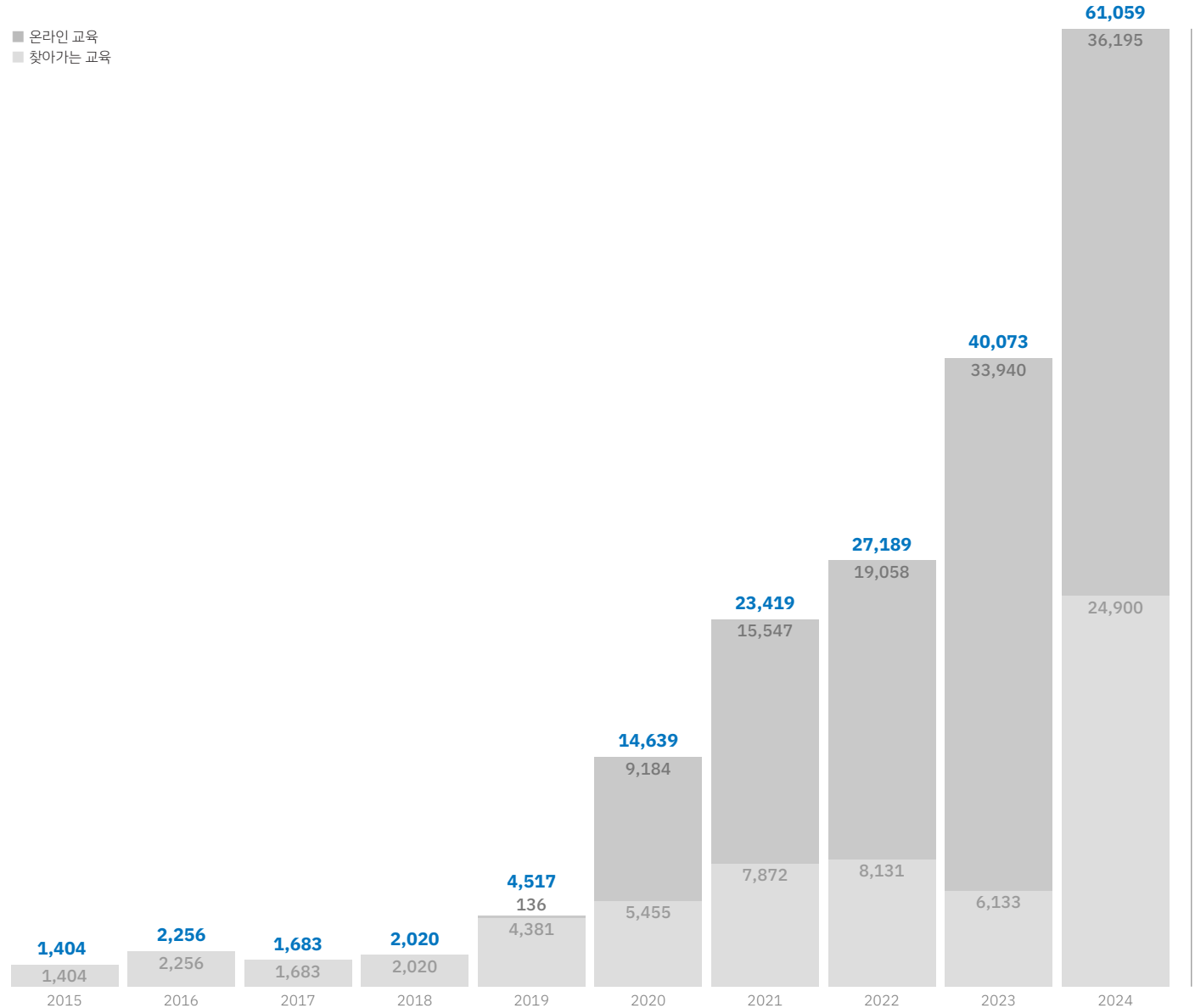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예술 현장의 무계약·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직업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과 예비예술인(예술대학교 및 예술중·고등학교 학생), 예술사업자를 비롯하여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교육기관 등의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 특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를 상·하반기 총 9회 진행하여 1,814명이 수료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2회 실시하여 2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예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124회 운영하여 총 24,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제공하였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36,19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예술활동 중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고, 예술인의 마음건강을 돌봄으로써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전국의 심리상담 지정기관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가에게 최대 12회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곳이 늘어난 총 47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신청자 1,413명을 포함해 총 1,732명이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받았으며, 상담 종료 후에는 소그룹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586명의 예술인이 참여, 예술인 간 심리적 지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 위기에 처한 동료 예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예술인 자살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은 본 사업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성과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10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공유회 <예술인 옆 상담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이 자주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자조 (self-help) 기술을 담은 '예술인 마음돌봄 지

전국 심리상담 지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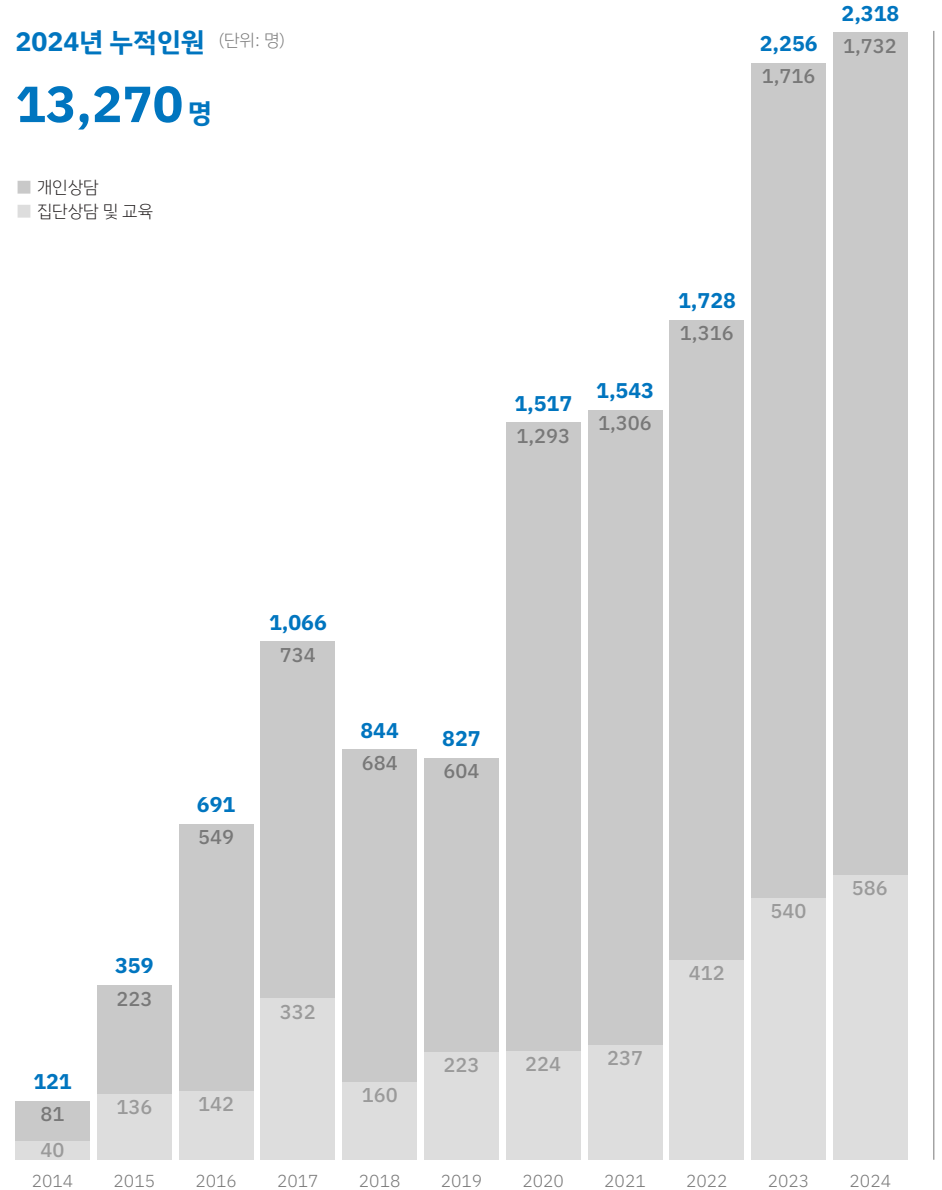
47개

침서」를 발간했습니다. 6권으로 이루어진 지침서는 무기력, 우울, 공황, 트라우마, 대인관계, 마음챙김(명상)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오프라인 배포와 더불어 전자책으로도 제작·유통되어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누적인원 (단위: 명)

13,270명

■ 개인상담
■ 집단상담 및 교육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을 체결한 기간 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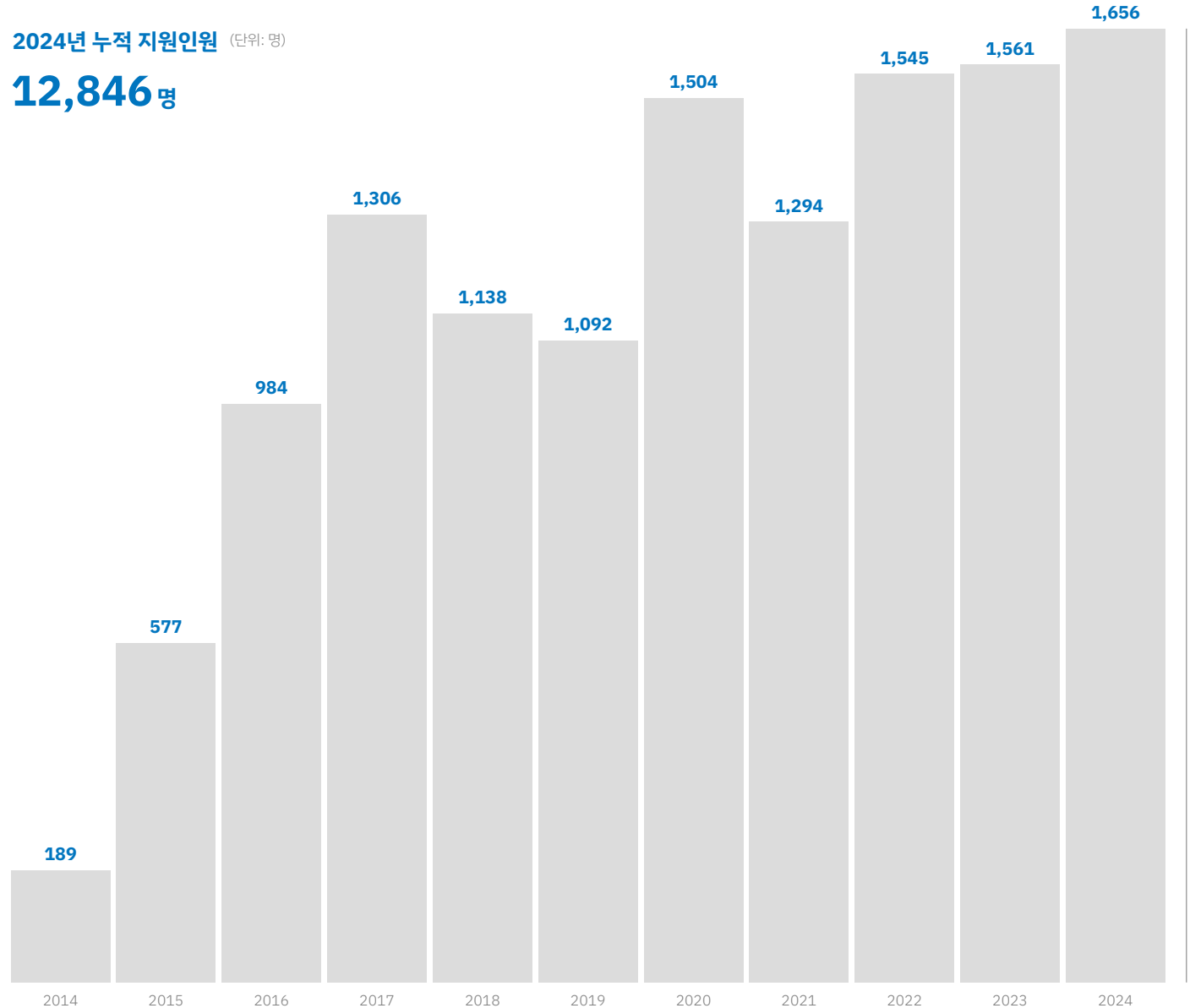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에 기여하였으며,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656명의 예술인(프리랜서 1,276명, 근로자 380명)과 25개 문화예술사업자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국민연금공단-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예술인 노후대비 교육을 최초로 3회에 걸쳐 시행하고, 국민연금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2024년 누적 지원인원 (단위: 명)

12,846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2020년 12월 10일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단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연중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총 2,852건이며 34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예술현장에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 콘텐츠를 제작해 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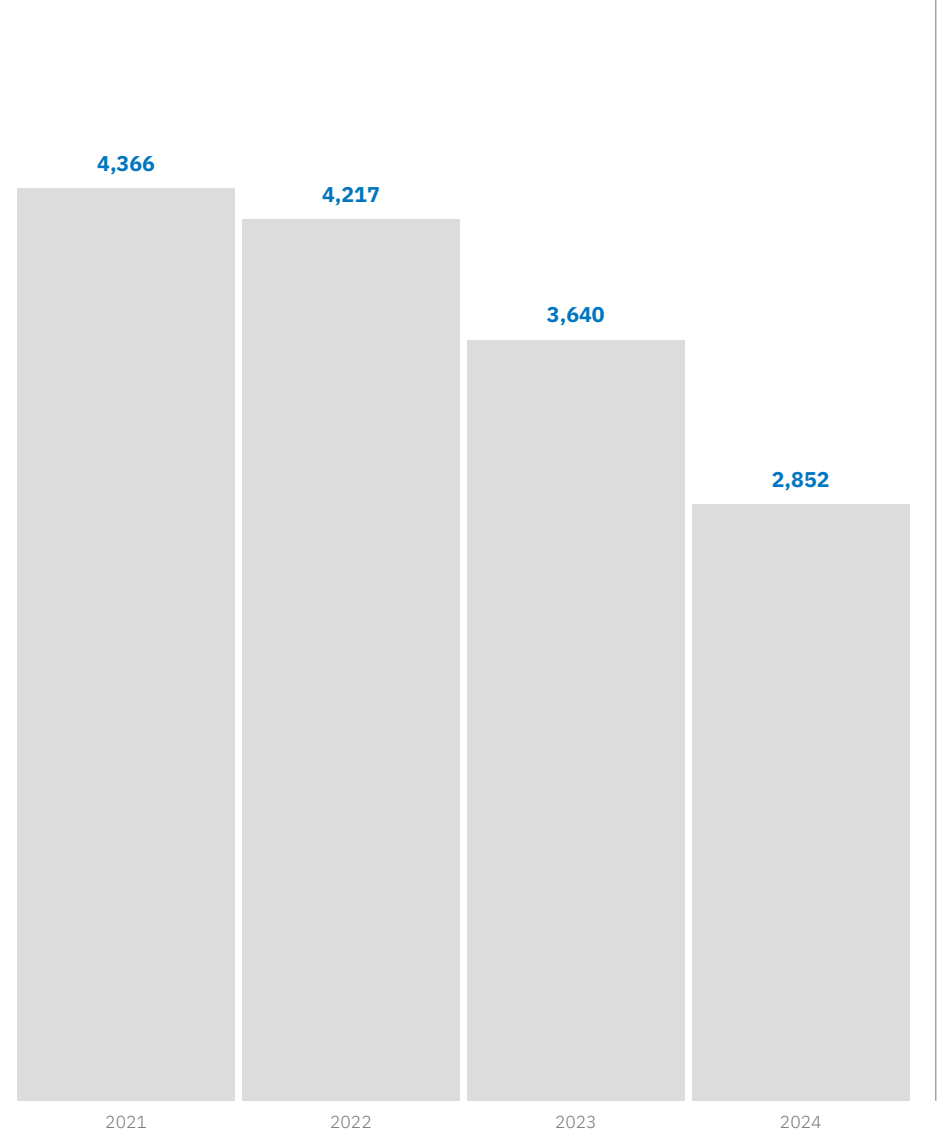
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 계산기는 누적 147,718건이 사용되며 문화예술사업자가 사전에 고용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도 홍보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13회의 예술인 고용보험 분야별 적용기준 및 제도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건수

누적 **115** 회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건수 (단위: 건)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등급~12등급의 보험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가입 및 해지, 증명원 발급 등 산재보험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50~90%를 환급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관련 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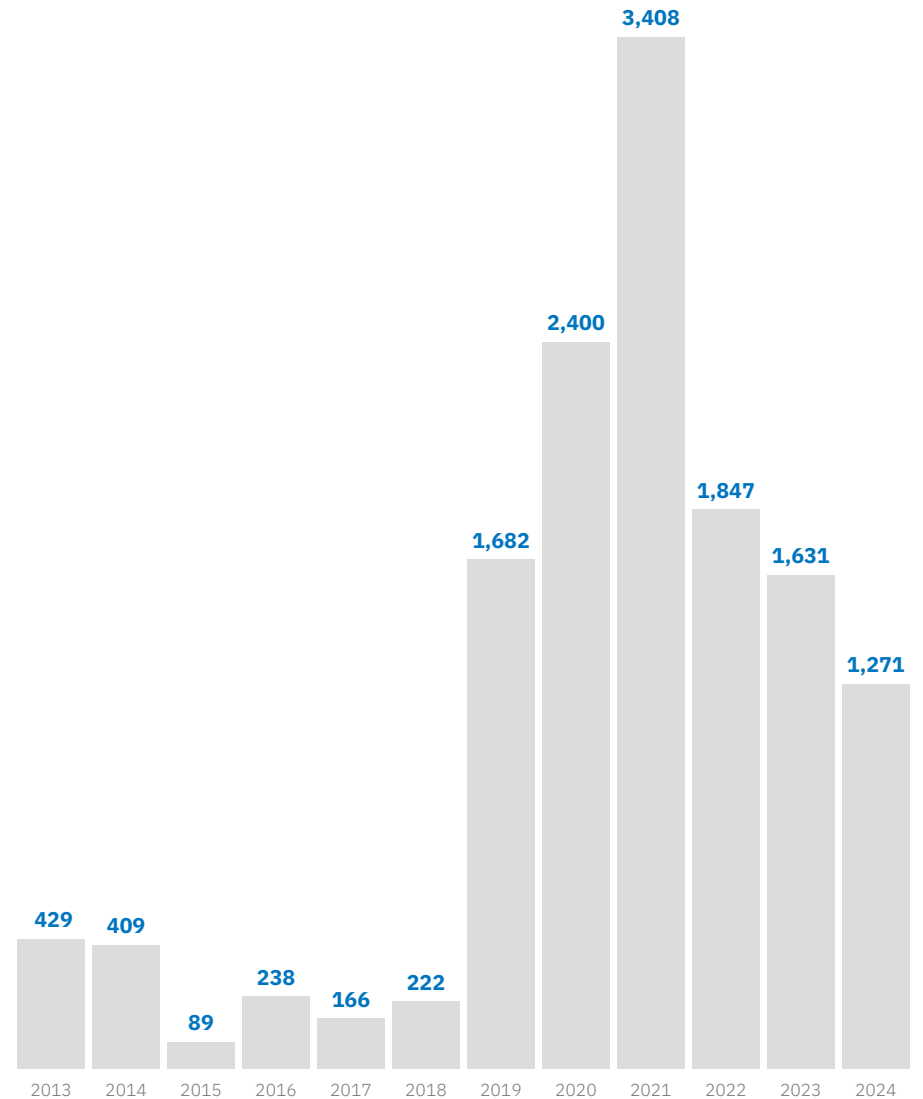
2024년에는 예술인이 산재보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안내 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4회로 확대 운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술인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문학·만화 분야)」를 수행하고, 연극분야 협·단체 및 15개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24년 누적인원

13,792명

그 결과, 2024년 신규 가입자는 1,271명으로, 누적 가입 인원은 13,792명에 달하였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단위: 명)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 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대학로와 마포 총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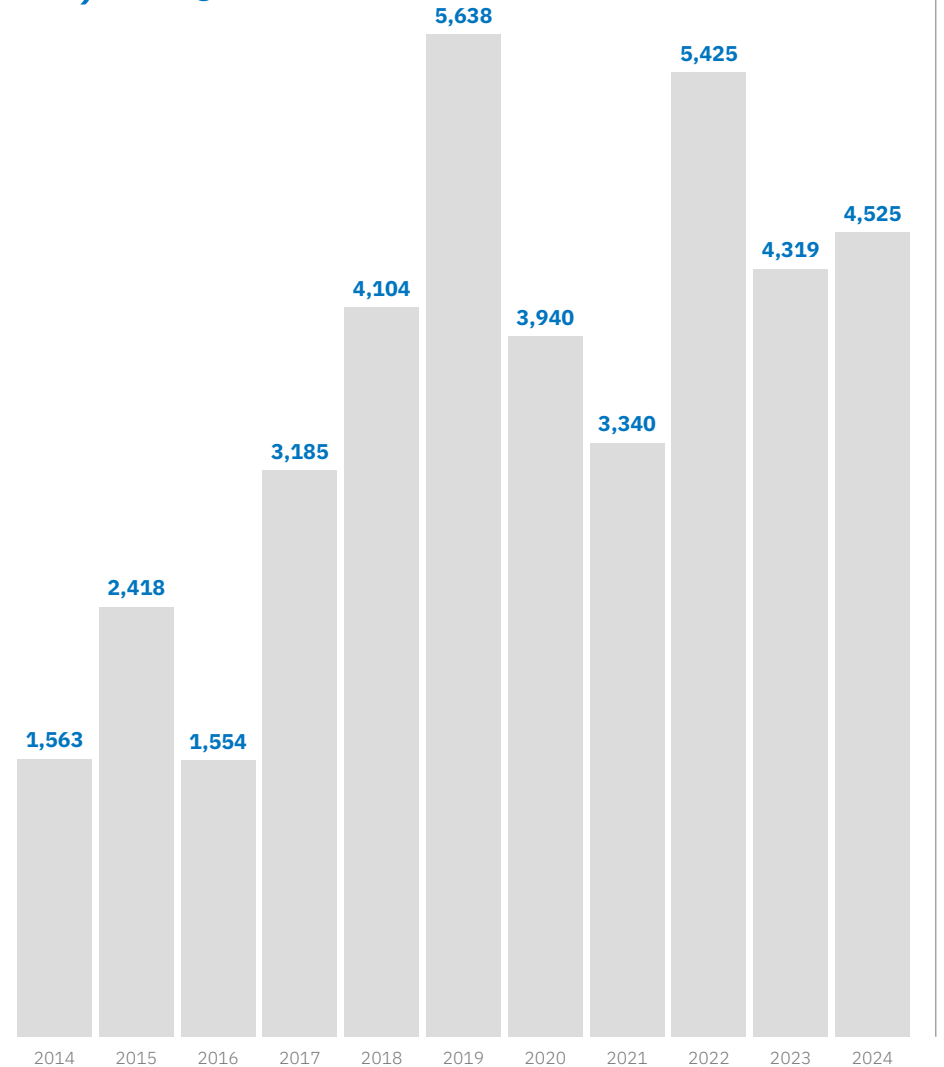
돌봄센터

총 2개소

반디돌봄센터(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24년 누적 이용인원 (단위: 명)

40,011명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보유한 주택 중 운영기관이 기획하고 제안한 테마에 맞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공급받아, 운영기관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중 가격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2024년 현재 공급되어 운영하는 곳은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로 총 60호가 입주 중입니다.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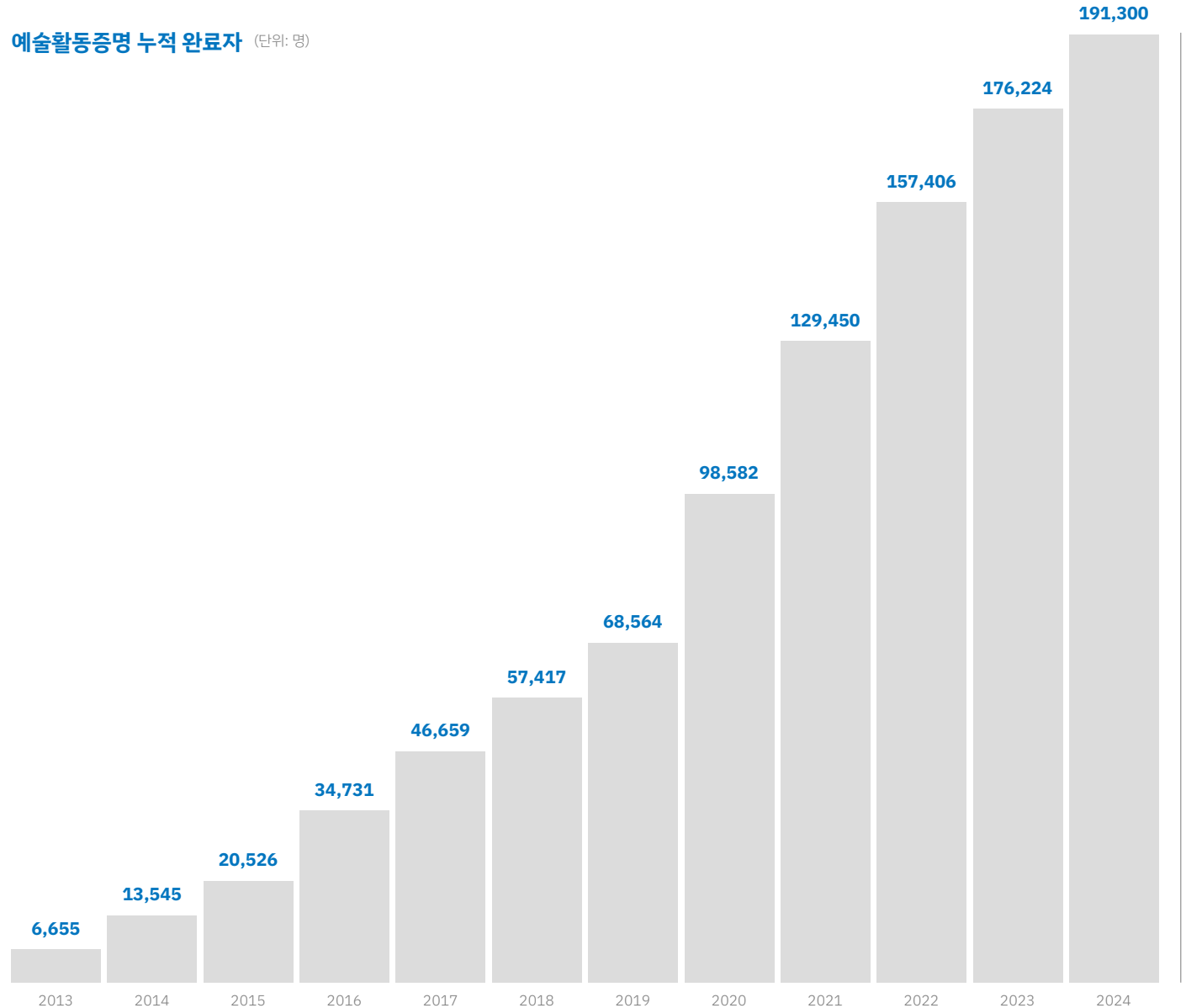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정 협력·협단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예술인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에서 완료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예술인의 관심과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제도 활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수는 191,300명에 달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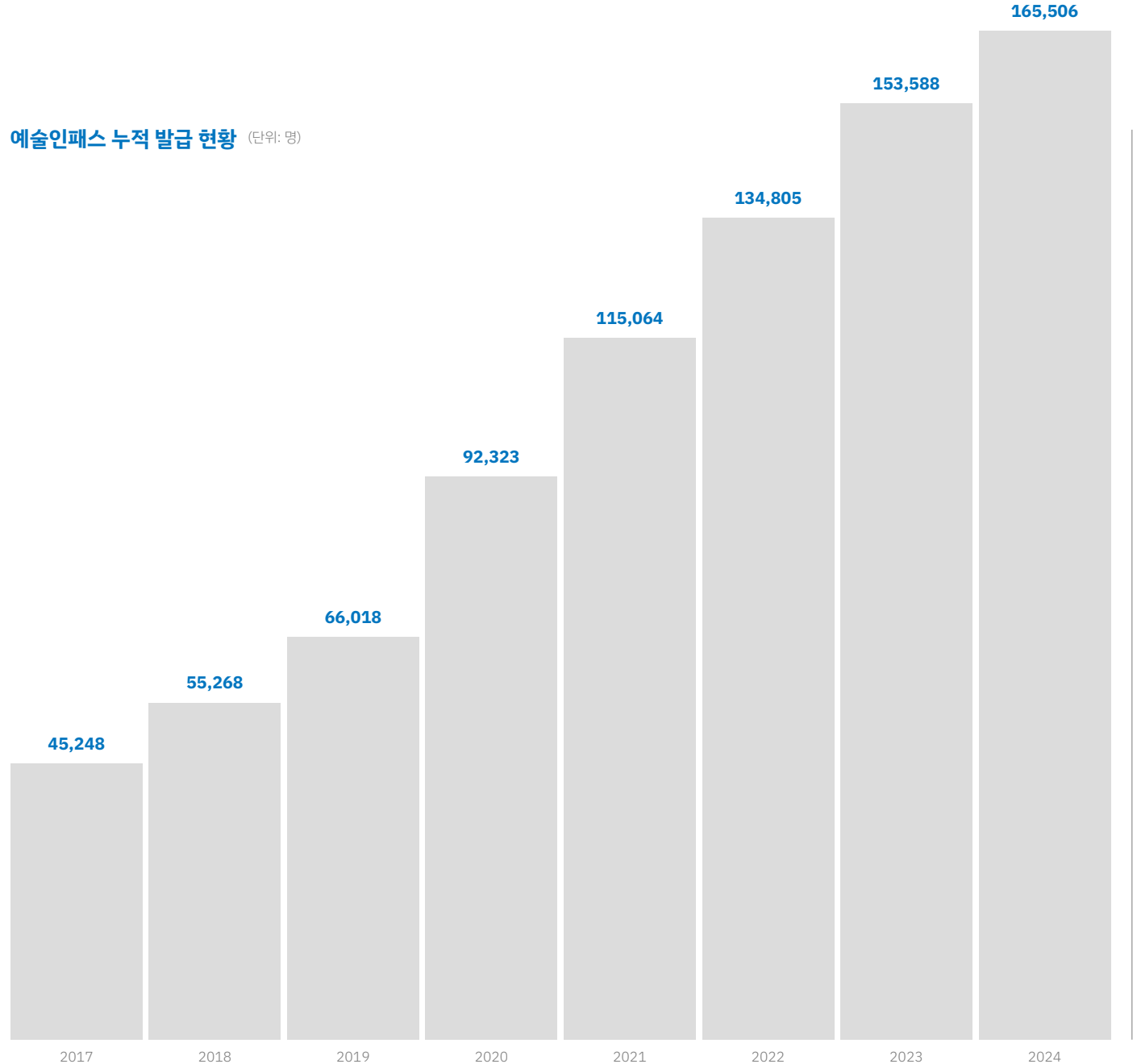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공연, 전시, 생활속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인패스 카드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발급자들도 재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크카드를 도입하여 전용 복지몰, 상해보험, 공연예매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누적 165,509명이 예술인패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현황 (단위: 명)



예술인패스 카드 이미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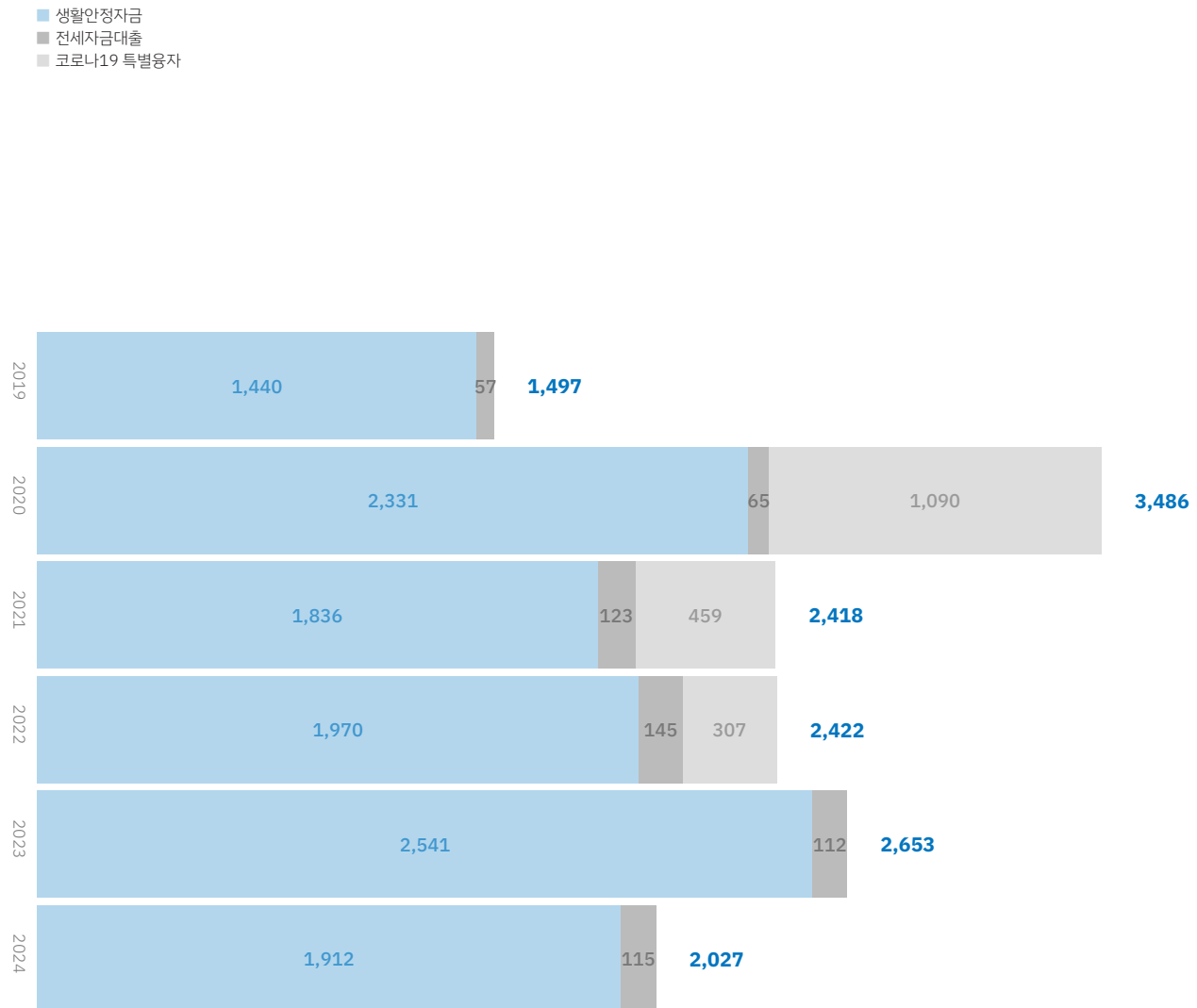
2024년 총 180억 원 규모로 운용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두 가지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 2.5%의 금리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상품으로 최대 7백만 원(긴급생활자금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1.95%의 금리로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도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을 이용한 예술인은 총 2,027명입니다.

재단은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예술인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자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두었으며,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해 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참여 예술인 (단위: 건)



2024년 예결산 현황

예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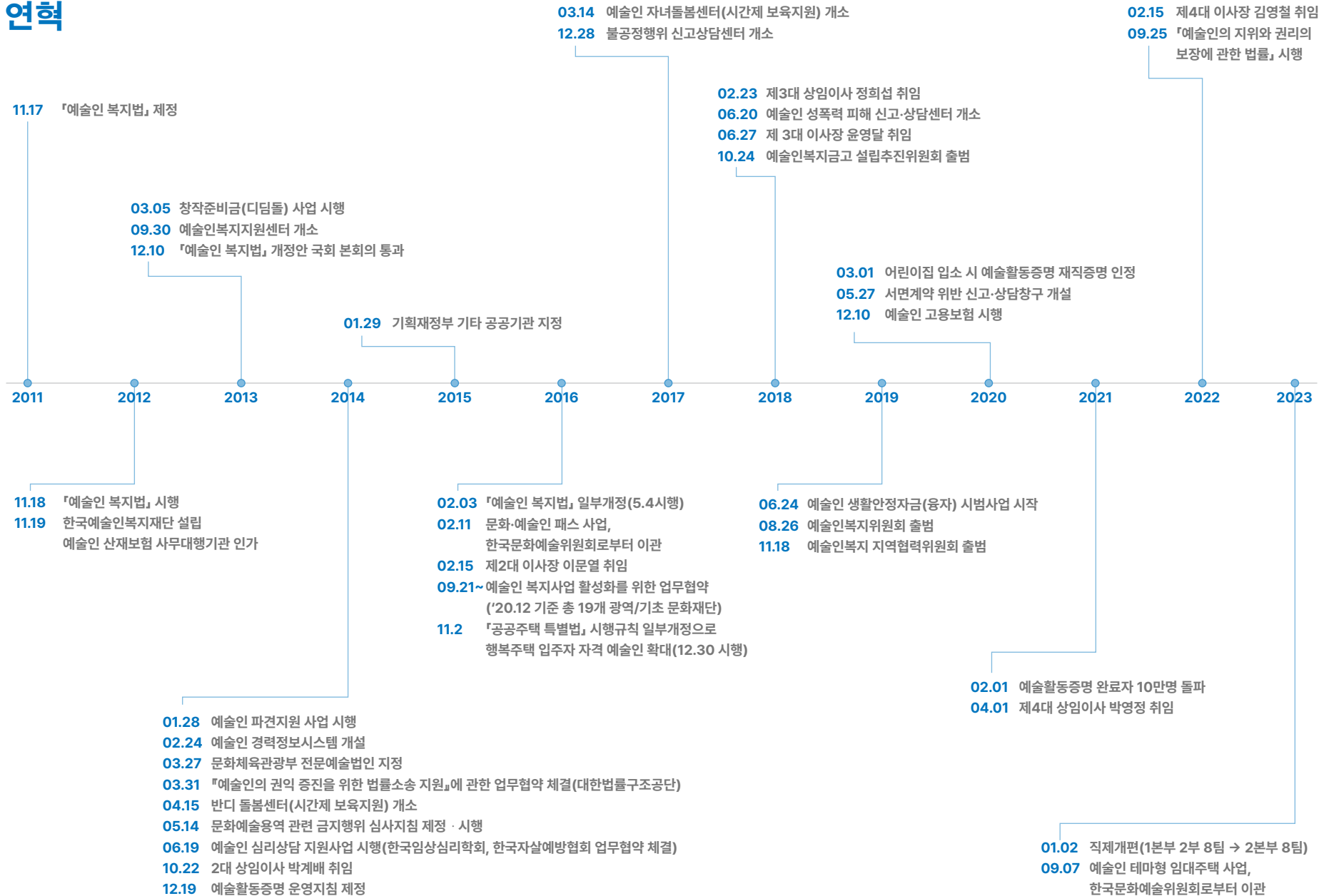
2024년 세입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6,516	105,496	
정부지원	국고보조금	87,186	86,285
	체육진흥기금	345	245
	문예진흥기금	18,907	18,888
기타	78	78	

(단위: 백만원)

2024년 세출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6,438	105,417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2,388	2,387
	경상비	2,103	1,966
	합계	4,491	4,353
직업역량강화	8,726	8,365	
창작역량강화	68,904	68,749	
불공정관행개선 지원	3,541	3,378	
예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1,374	1,360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150	79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345	245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8,907	18,888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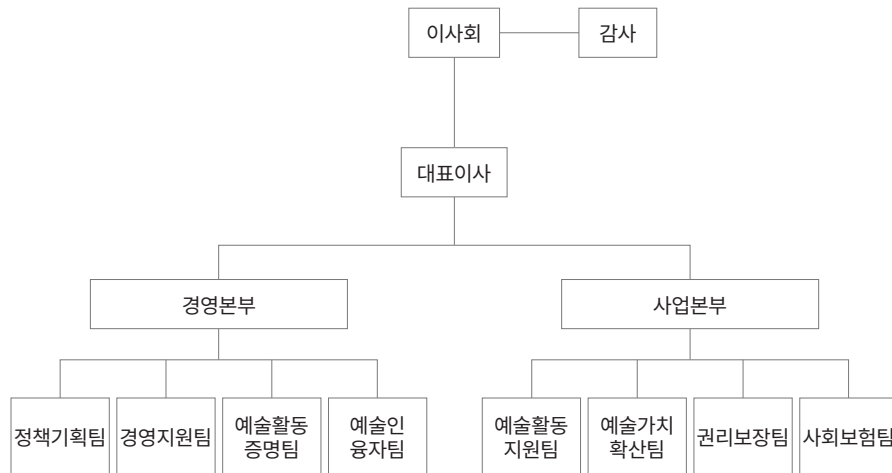
연혁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조직도

조직 구성: 2본부 8팀



부서별 업무내용

구분	주요업무
경영본부	정책기획팀 1. 이사회·규정 2. 예산 3. 대외협력 4. 홍보·출판 5. 전략기획·평가·경영활동 6. 연구 및 정책개발(위원회 운영) 7. 기부금 관리
	경영지원팀 1. 대외·감사 2. 인사·노무·복무·교육 3. 계약·총무 4. 시설관리·보안·안전보건 5. 재무·회계·세무 6. 정보화·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예술활동증명팀 1.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및 관리 2. 민원관리
	예술인용자팀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2. 예술인패스
사업본부	예술활동지원팀 1.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예술가치확산팀 1.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협업/기획) 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지역) 3. 예술인 역량강화
	권리보장팀 1. 예술인신문고(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창구 운영 및 피해지원 2. 법률상담·컨설팅 3. 예술인 심리상담 4.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및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5.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회보험팀 1. 예술인 산재보험 2.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4.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5.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이사회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당연직 2명, 선임직 9명, 감사 1명

직 위	이 름	주요경력
이사장(비상임)	김영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2021.4.1.~2024.4.15.)
이사(비상임)	권남희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
	김병호	스쿨씨어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주	협성대 교수(가구디자인학과)
	김용환	前추계예대 교양학부장/국제교육센터장
	김인희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이용진	前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천재현	(사)정가악회 대표이사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불어불문)
당연직 이사(비상임)	정슬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2023.12.18.~2024.9.5)
	김현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2024.9.9.~)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감사(비상임)	정희경	메리츠자산운용(주) 수석

20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 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주 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 화 02-3668-0200
누리집 www.kawf.kr

